

# 대화의 비밀 찾기 : **협력과 예의**

## 2. 공손성의 원리

박재현

# 공손성의 원리

```
graph TD; A[공손성의 원리] --> B[예의 규칙]; A --> C[공손성의 원리];
```

예의 규칙

공손성의 원리

# 예의

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중시하였을 경우 강조되는 대화 원리의 핵심어

1. Lakoff(1973) : 예의 이론
2. Leech(1983) : 예의(공손성) 원리

# 예의 규칙(Lakoff)

## 예의 규칙(1973)

① 강요하지 말라.  
Don't impose.

② 선택권을 주라.  
Give options.

③ 기분 좋게 하고 친절하라.  
Make a feel good – be friendly.

## 예의 전략(1990)

거리감  
Distance

예우 (존중, 경의)  
Deference

동지애  
Camaraderie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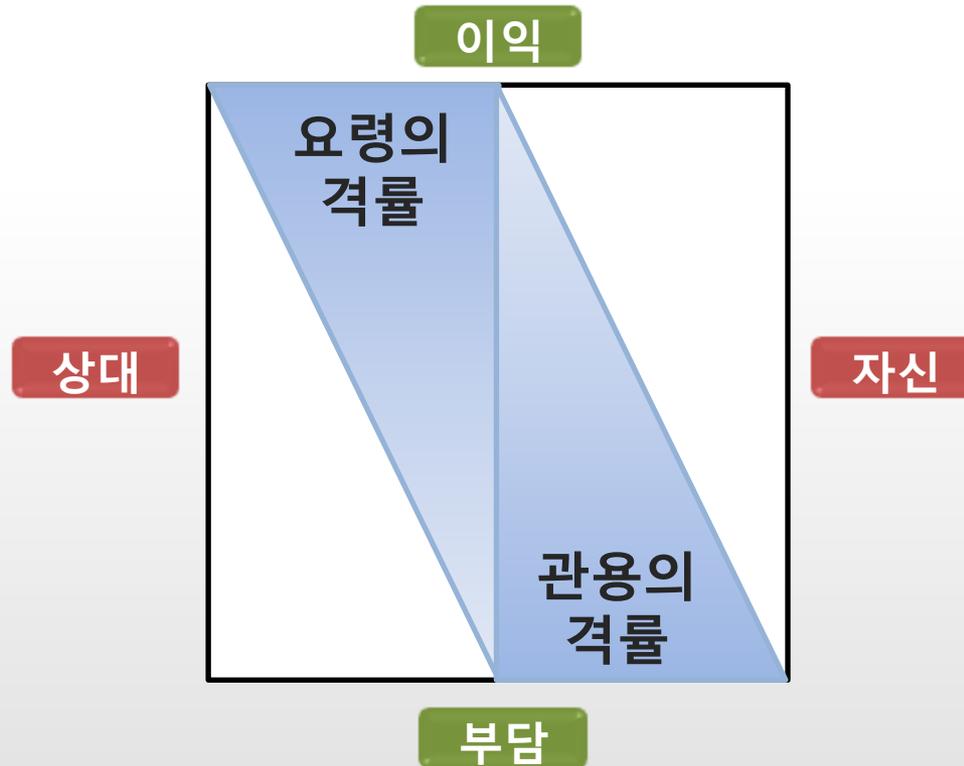
Leech(1983)는 '예의'를 대화를 움직이는 기본적 힘으로 생각.  
 특히 예의(공손성) 원리는 협력의 원리가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를  
 설명하고자 제안하였음.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<b>(가) 요령의 격률 (Tact Maxim)</b>	<b>(나) 관용의 격률 (Generosity Maxim)</b>
a. <b>상대의 부담</b> (cost)을 최소화하라.	a. <b>자신의 이익</b> 을 최소화하라.
b. <b>상대의 이익</b> (benefit)을 최대화하라.	b. <b>자신의 부담</b> 을 최대화하라.
<b>(다) 칭찬(찬동)의 격률 (Approbation Maxim)</b>	<b>(라) 겸손(겸양)의 격률 (Modesty Maxim)</b>
a. <b>상대에 대한 비방</b> (dispraise)을 최소화하라.	a. <b>자신에 대한 칭찬</b> 을 최소화하라.
b. <b>상대에 대한 칭찬</b> (praise)을 최대화하라.	b. <b>자신에 대한 비방</b> 을 최대화하라.
<b>(마) 동의의 격률 (Agreement Maxims)</b>	<b>(바) 공감의 격률 (Sympathy Maxims)</b>
a. 상대와 자신의 <b>이질감</b> (disagreement)을 최소화하라.	a. 상대와 자신의 <b>반감</b> (antipathy)을 최소화하라.
b. 상대와 자신의 <b>일체감</b> (agreement)을 최대화하라.	b. 상대와 자신의 <b>동감</b> (sympathy)을 최대화하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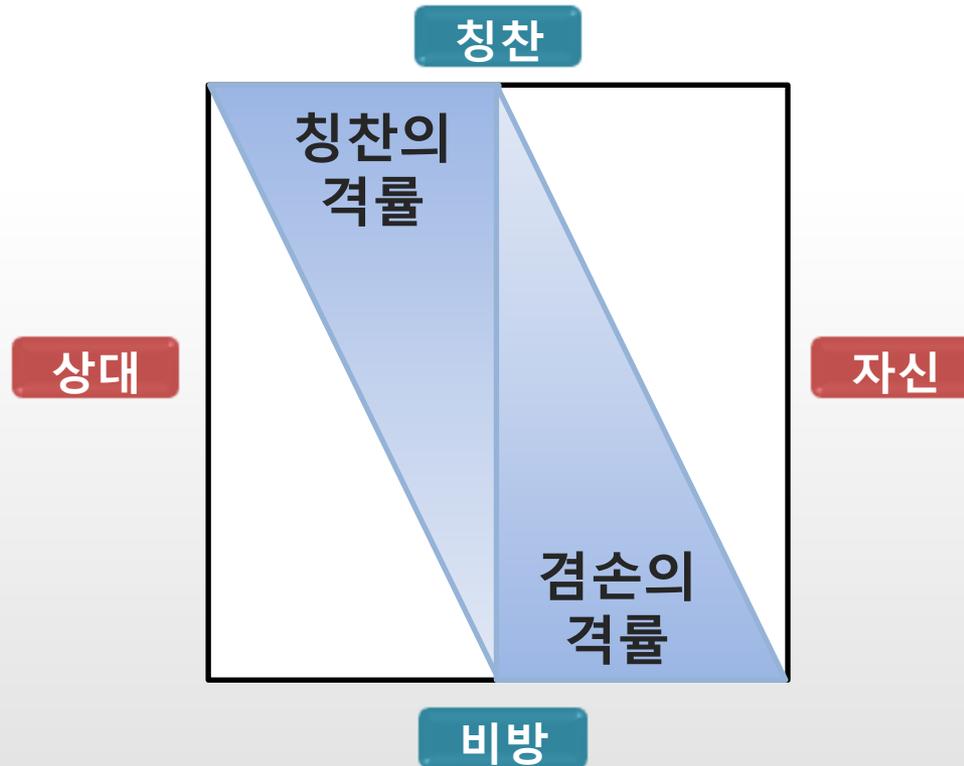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예의(공손성) 원리는 '상대'와 '자신'을 축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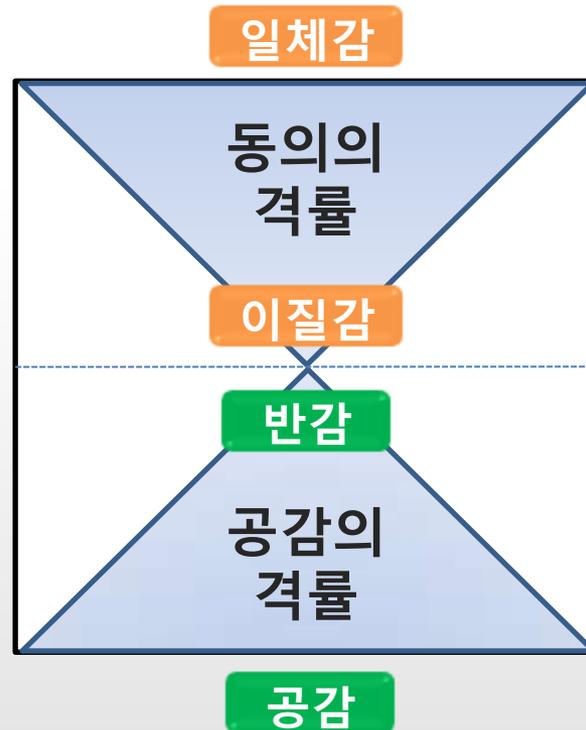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예의(공손성) 원리는 '상대'와 '자신'을 축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.

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예의(공손성) 원리는 '상대'와 '자신'을 축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.

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요령의 격률 (Tact Maxim)

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측면과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음.

→ 부담과 이익을 양 끝단으로 하여 부담이 커질수록 예의가 없는 것이며 이익이 커질수록 예의가 있는 것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요령의 격률 (Tact Maxim)

부담 ↑

- (1) 감자 껍질을 벗겨라
- (2) 내게 신문 좀 다오.
- (3) 앉아라.
- (4) 저것 좀 봐.
- (5) 주말 잘 보내.
- (6) 샌드위치 하나 더 먹어.

이익 ↑

- (1) 전화 받아라.
- (2) 전화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.
- (3) 전화 좀 받아줄래?
- (4) 전화 좀 받아줄 수 있니?
- (5) 전화를 좀 받아줘도 괜찮겠니?

간접성 ↑  
공손성 ↑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관용의 격률 (Generosity Maxim)

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격률은  
요령의 격률을 화자 자신의 입장에 적용한 것

→ 부담과 이익의 관계 역시

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,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가 있게 됨.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요령 & 관용의 격률

ex ) A :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자네가 발표를 맡아줄 수 있겠나?

B1 :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.

B2 : 먼저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.

B1 - 관용의 격률 지킴

B2 - 요령의 격률 위배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칭찬(찬동)의 격률 (Approbation Maxim)

상대에 대한 **비방**을 최소화하고 **칭찬**을 최대화하라는 것

→ 비방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고  
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칭찬의  
격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겸손(겸양)의 격률 (Modesty Maxim)

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라는 겸손 (겸양)의 격률도 '칭찬'과 '비방'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

→ 이는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중시되지만, 과도한 자기 비하는 금물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칭찬 & 겸손의 격률

ex ) A : 어제 회의에서 자네 발표가 가장 뛰어났네. 역시 자네는 우리 부서의 기둥이야.

B1 : 예. 다음에도 시켜만 주십시오. 멋지게 해내겠습니다.

B2 : 감사합니다. 여러 모로 부족했습니다. 과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.

B1 - 겸손의 격률 위배

B2 - 겸손의 격률, 칭찬의 격률  
모두 사용 : 예의 표현 ↑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동의의 격률 (Agreement Maxim)

상대와 자신의 **이질감**을 최소화하고 **일체감**을 최대화하라는 것

- 동의의 격률을 준수하면 예의를 갖추어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됨.
-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의견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함.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동의의 격률 (Agreement Maxim)

ex ) 교장 선생님 : 자율 장학 차원에서, 수업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?

송교사 : 교장 선생님,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수업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. 학교 서버 용량도 부족하고,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비교하는 등 역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.

김교사 : 교장 선생님, 평소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영상을 공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수업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교사의 부담이나 학교의 설비 면에서 재고가 필요합니다. 일단 한 학기에 한두 개씩을 시범적으로 올리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?

# 예의(공손성) 원리(Leech)

## 공감의 격률 (Sympathy Maxim)

상대와 자신의 **반감**을 최소화하고 **공감**을 최대화하라는 것

- 상대의 불행에 유감을 표현하고, 행운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.
- 기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상대에게 공감을 표현하고, 불행한 일일 경우에는 불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과의 공감에 효과적임.